

결 론

레오나드 다빈치가 날틀을 생각할 때나, 라이트 형제가 그들의 최초의 비행기 “플라이어”(Flyer)를 시험비행할 때만 해도 이러한 아이디어는 고대 희랍의 신화 “이카루스”的 이야기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었다. 당시의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을 허황된 것으로 여기고 조소를 보내거나 아니면 회의적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현실로 나타났다.

우리가 2000년대를 바라보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너무나도 많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크게 다르다. 그것은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던 때에도 그러하였다. 로마는 당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아무런 조건도 갖추고 있지 않는듯이 보였다. 사도 바울이 순교로 그의 삶을 바쳤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은 로마를 결국 정복하였다. 1,700년대 후반, 영국의 산업혁명이 영국사회에 엄청난 비리와 악을 편안하게 하였으나 존 웨슬리를 비롯한 열심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영국을 변화시켜 다시금 세계에 복음을 힘차게 선교하는 나라로 만들었다.

2천년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나라에 일어날 여러 가지 변화를 기대한다. 이 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꿈과 비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성실하게 행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의 영광을 친히 나타내실 것이다. 2천년대의 현실을 예측하여 그에 맞는 목회전략을 개발해 나가며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자.

2000년대 교회와 교육목표

강 용 원
(교수, 고신대학교)

1. 들어가는 말

2000년대가 이제 7, 8년 앞으로 다가와서 그런지 최근에 청탁을 받는 원고의 주제나 강의의 제목에는 유난히도 ‘2000년대’라는 말이 자주 나타난다. 1900년대와 2000년대는 그 숫자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느끼게 해 준다. 어쩌면 2000년대는 오늘의 우리가 처한 상황과는 아주 다른 어떤 모습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긴장감을 느껴 보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2000년대에 우리가 처하게 될 상황을 추정해 보기도 하고, 우리의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어 보기도 한다. 하나님께서 연, 월, 일, 시를 정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시간에 대한 의식을 갖게 하시는 것은 인간을 향한 크나큰 배려라고 생각해 보기도 한다. 시간의 흐름을 인식하게 하는 이런 도구가 없다면, 우리는

그만큼 비역사적일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인간의 발전은 그만큼 그 속도가 늦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한다. 1999년 12월 31일에서 2000년 1월 1일로 넘어가는 일은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1992년 12월 31일에서 1993년 1월 1일로 넘어가는 것과 그 본질상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시간의 흐름은 물이 흘러 가는 것과 같아서 언제나 연속적인 것이다. 그러기에 문제는 우리가 2000년대를 생각하면서 어떤 급격한 변화를 상정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오늘에 충실한 자세를 갖고 오늘의 문제들을 하나씩 타결해 나가는 노력을 통해서 의미있는 2000년대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

필자는 2000년대의 우리의 목회의 현장을 점검하는 특집의 기사 가운데서 한 부분으로 교육의 분야를 부탁 받았다. 목회라는 말은 좁은 의미로 설교나 성례집행과 병행하여 이루어지는 개개인의 영혼을 돌봄(Seelsorge)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조금 넓은 의미, 즉 목사가 교회 전체를 이끌고 관리하는 제반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로 하겠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목회의 현장을 이런 저런 부분으로 구분하는 일에 익숙하여 왔다. 예를 들면 설교, 심방, 행정, 상담, 교육 등이다. 교육은 목회의 한 부분을 이룬다. 그러나 이 글에서 필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2000년대의 목회의 현장에서 특별히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목사의 과제로서의 교육적 사명의 재 인식, 교회교육의 제 측면에 대한 새로운 전략의 마련, 그리고 더 나아가 교육목적의 이념을 실현해 나가는 일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2. 교육목회의 개념

최근에 소위 ‘교육목회’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인다. 교육목회라는 개념이 아직 정립된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조작적 개념정의로 만족해야 할 것 같다.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하고 개념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말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요사이 흔히들 여러 가지 종류의 목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본다. 예를 들면 병원목회, 장애인목회, 학원목회 등이다. 그래서 교육목회라는 것이 어떤 특수한 형태의 목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오해되기가 쉽다. 교육목회는 어떤 특수한 목회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목회를 지향하려는 노력을 지칭하는 것이다. 소위, 교육목회라는 말은 무엇보다도 교육과 목회의 이원론적 생각에 대항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아직도 우리의 주위에는 목회(성인중심의 예배와 돌봄)와 교육(어린이 중심의 주일학교교육)의 극심한 분리 현상이 있음을 본다. 일반적으로 교육은 평신도의 일이며 그 대상이 어린이임에 반하여, 목회란 목사의 일이며 그 대상이 어른이라는 생각이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어린이에게 시작하여 성인에 이르기까지의 전 회중을 포괄하는 교회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성, 연계성, 통합성이 결여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는 이 두 가지를 서로 관련지어야 한다는 노력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도 목사가 책임져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하는 일이나, 성인교육의 강조, 더 나아가 ‘어린이목회’, ‘청소년목회’ 혹은 ‘성인목회’라는 말이 사용되는 경향 등은 교육과 목회가 서로 많이 접근되고 있으며 서로의 보충과 상호작용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기독교교육의 본질은 결국 신자의 신앙과 삶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게 하는 노력이라 할 수 있고, 목회 역시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으로 먹이고 세워 나가는 일이라고 볼 때, 교육과 목회는 그 본질에 있어서 유사성을 갖고 있으며 차이점이 있다면 주체자와 그 형

태에 있어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즉 교육은 목사를 포함한 모든 신도들이 그 주체가 되며,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중심과제로 하여 신자의 삶과 관련을 맺어 나간다고 볼 수 있고, 목회는 특별한 소명을 받은 목사의 일로, 전통적인 목회의 방법들, 즉 예배, 목회대화, 설교, 심방, 교회관리, 성례의 집행, 결혼식, 장례식, 입교식, 세례식 등의 의식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 그 핵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다.

목회라는 것이 신자 개개인을 설교와 성례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교회 규율에 의하여 교회적으로 그들을 훈련시키는 것이라고 볼 때, 이미 목회라는 개념 속에는 교육의 요소가 깊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목회란 목회의 다른 형태를 추구하는 일이라기 보다는 목회의 참된 본질이 무엇인지 를 찾아 나가는 일로 목회의 본질 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교육적 의미를 인식, 수용, 적용, 개발, 목회의 방법론 등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할 것이다. 교육목회적 노력은 ‘목사인 교사’(pastor-teacher, 앱 4:11)가 행하는 목회의 제반 영역에 대한 교육적 접근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목회를 구성하는 설교, 심방, 상담, 예배 및 제반 의식, 교제, 봉사의 교육적 의미 부여와 개발, 목회구조와 방법을 일방통행적인 구조에서 상호통행적이며 참여를 복돋우는 구조에로의 전환하는 일, 전 회중을 교육 시스템으로 조직하는 일 등으로 결국 교회를 “교육하는 교회”로 형성해 나가는 일이다. 따라서 이 일은 하나님의 백성인 전 회중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일깨워 주는 일에 기여하게 된다.

3. 교육목회의 실천을 위한 몇 가지 기본원리

(1) 교회의 본질로서의 교육에 대한 인식

오늘날 교회의 교육은 몇 가지 면에서 위기적인 요소들을 안고 있다. 그 가까운 예는, 주일학교를 비롯하여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여러 가지 설명 가능한 사회적, 인구학적 원인이 있을 것이지만, 우리가 우선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현상임에는 틀림이 없다. 우리 교단의 경우도 80년대 초반에서부터 어린이의 숫자가 어른 교인 수보다 작아지고 있다고 한다. 또한 전반적인 신앙교육에 대한 인식이 격감되고 있다. 자녀 수의 감소로 자녀의 신앙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의 관심의 대부분은 세속적이고 또한 사회적인 것들이다. 사교육비는 증가해도 신앙교육에 대한 관심은 비례해서 오히려 작아지고 있는 것 같다. 더욱이 교육의 전반적인 현실을 볼 때, 교회교육이 변화하는 세대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도자나 시설 혹은 투자면에서 이제는 기독교 교육적 노력들이 일반교육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교회교육의 중요한 병폐는 지도자들의 관심 부족에서도 기인되겠지만 교육이 교회의 한 부분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교회에서 왜 교육이 중요한가’의 문제는 언제나 우리가 새롭게 인식해야 하는 주제이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교육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마 28:19~20의 말씀에서 주동사는 ‘제자를 삼으라’는 말 하나 뿐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구절을 선교의 명령으로 묘사하기도 하나 염밀한 의미에서 제자를 삼는다는 말은 교육적인 용어이며, 또한 교육적인 행위를 지칭하는 말이다. 또한 교육이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신 두 가지 명령이 종교적 명령과 교육적 명령이라는 사실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들의 종교적 유산, 즉 유일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교육을 통해서 계승시켜야 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교육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신 6:4~9에서 잘 나타나

고 있다. 더우기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쁘신 뜻대로 자기의 계획을 수행하시되, 우리의 교육적 노력을 이용하신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물을 주거나 씨를 뿌려도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나 이 말은 우리가 뿌리는 일이나 물 주는 일이 필요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구약에서는 이미 교육이 강조되었다. 구약은 가정에서의 종교적 교육을 강조하였고 그 중심은 가장이었다. 제사장과 선지자는 유대백성의 종교교사였으며 포로 시기 이후에 랍비는 종교와 종교교육의 최고의 권위자였다. 그 당시나 오늘날의 유대교에서는 랍비의 지위보다 더 존경을 받는 지위는 없다. 또한 예수님이 그의 사역에서 교육을 중요한 것으로 취급하셨다. 적어도 예수님은 60번이나 랍비로 불리웠고, 30번은 선생으로 불리웠다. 그러므로 그 자신의 목회를 그리스도의 목회와 동일시하는 목사는, 그리스도는 먼저 교사이셨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예수님은 143구절에서 선포자로 217구절에서 가르치는 자로 언급되었다. 예수님은 자주 가르치셨고, 군중들은 그의 가르침에서 기쁨을 얻었다. 또한 초대 교회는 여러 면에서 사도들과 지도자들의 교육사역의 전파에 부름을 받은 것뿐 아니라 가르침에로도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청되는 가장 중요한 인식은 교회의 교육적 본질에 대한 자각과 목회자에로의 부름에 대한 인식이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그 후손에게 전달시키는 교육의 공동체였으며,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확증시켜 주신 그의 승리와 구원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교육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교회의 갱신은 교육의 갱신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2) 평생 교육체제로서의 교회교육의 구조 개선

미래의 교회교육은 평생교육과정으로 모든 교인이 교육의 대상이라는 사실이 강조될 것이다. 따라서 어린이 교육 뿐 아니라 성인(장년)교육도, 특히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먼저 어린이를 중심한 주일학교 교육이 교회교육의 전체라는 사고를 버려야 한다. 주일학교는 신앙교육의 유일한 전략이 아니다. 기독교교육은 모든 연령층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필요로 하는 바, 기독교교육이야말로 염밀한 의미에서 평생교육적 과정(life-long process)이다. 그러므로 교회교육은 연령을 기초한 학교식의 교육 시스템 외에 다양한 초세대적, 간세대적, 상설적, 비상설적 교육의 프로그램을 확산시켜야 한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출생으로부터 죽음에 이르는 시간까지 교육받게 되는 세대포괄적인 과정으로 구조화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회중의 유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유아들의 부모들을 위하여 뚜렷이 개발된 목회의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라면 그들이 학교에서 자기를 실현하며 그들의 삶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날 수 있기 위한 사려 깊은 시도가 교육목회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의 교육목회는 크리스챤으로서의 믿음과 삶, 그리고 그들의 사역과 관련하여 청년 남녀와 모든 성인들을 위한 특별한 도움을 계획해야 한다. 교회는 은퇴한 자들과 노인에 대해 다른 곳에서 발견할 수 없는 독특한 관심을 보여 주어야 한다.

(3) 신앙공동형의 교육전략

교회교육은 본질상 공동체적 삶에 기초해서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는 의도적 활동이다. 즉 교육 공동체로서의 교회인식이다. 교회교육은 교회의 전체적인 기능으로 이루어진다. 공동체의 멤버는 모두 가르치는 자임과 동시에 학습자가 된다. 이미 말한 것과 같이 여기서 말하는 학습이란 일정한 기간의 특정 대상에만 국한하는 교육이 아니라 일평생 동안 계속되는 학습을 의미한다. 교회 전체가 교육

의 현장이다. 교회는 교육의 주체이면서도 또한 그것이 실현되는 현장이다. 즉 교회학교의 조직이나 교육관 시설만이 교육의 현장이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인적, 물적 요소가 다 교육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교회당의 입구와 현관으로부터 시작하여 안내하는 접사의 거동에서부터 교육적 영향력을 행사된다. 전체로서의 교회는 하나의 교사로서의 속성을 가지며, “교회는 교육의 프로그램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교육적 프로그램이다.” (Allen W. Graves)

최근에는 이런 생각들이 모아져서 교회교육의 접근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교회교육이 지식 전달에 초점을 두는 학교식 (Schooling) 교육구조에 의존하기 보다는 교회의 공동체성에 근거하여 신자들 상호간의 삶의 스타일과 태도 형성에 주안점을 둔다. 일찌기 로렌스 리차즈는 신앙교육의 출발점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즉 유기체적인 교회론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는 흔히 교육에 대해서 생각할 때면 흔히 학교나 학교의 교실을 상상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교육현장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다. 그러나 이 새로운 접근이론은 과연 그런 것인지 의문을 제시한다. 그들은 신앙교육에 있어서는 학교식 모델보다는 ‘신앙공동체’형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서 강조하는 것을 정리한다면 교수(teaching)보다는 삶의 나눔(sharing)의 중시, 프로그램이나 조직 보다는 인간관계의 중시, 교실환경보다는 ‘교실을 넘어서’ 이루어지는 포괄적 삶의 정황(total life setting)의 중시, 연령을 기초한 조직이 아니라, 간세대, 초세대적인 교육의 강조, 공동체적 삶과 신앙의 표현으로서의 의식이나 예배의 강조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모든 회중은 형식적, 비형식적 과정을 통하여 모두가 가르치며 배우는 자들이 된다. 이러한 전체적인 교육목회의 개념은 그 책임을 평신도와 교역자가 나누어 가지며 각기

특수화된 기능을 또한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4) 교육의 전문화 팀 사역(team ministry)의 이상

2000년대의 교회목회는 무엇보다도 팀 사역의 이상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것은 담임 목사나 혹은 목사들의 팀으로 구성되는 목회를 지칭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인들을 그 목회의 팀에 참여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목사가 다양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모두 가지게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교육을 전문으로 훈련받은 교육목사(영·유아 교육목사, 어린이 교육목사, 청소년 교육목사, 성인 교육목사 등), 음악에 상당한 재능과 교육을 받은 음악목사, 상담의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상담목사 그 외에도 기획, 행정, 출판 등을 맡는 목사들도 가능할 것이며, 이와 같은 전문화된 목회자의 양성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의 모든 일을 목사가 독점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며, 또한 실제로 그것이 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담임목사는 교회의 제반 문제에 책임을 지고는 있으나 그것이 그가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다.

따라서 교육목회의 성취를 위해서는 교회교육의 훈련을 받은 전문가의 능력과 지혜를 교회의 사역에 동참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필자는 최근에 활발하게 진행되는 교육사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언급해 보기를 원한다. 필자가 우선 강조하고자 하는 점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교육사를 이야기 할 때 언제나 최우선적으로 제기되는 문제가 “기독교교육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얼마나 신학적 훈련을 받았기에 교회에서 전문가로 일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이다. 이 질문은 우리가 분명히 고려해야 할 질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은 팀 사역이라는 넓은 개념을 전제함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공동(협동)목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은 분명히 전문화된 지혜를 함께 사용해 보자는 것이다. 따라

서 팀 사역의 중요성은 바로 상호작용에 있으며 보충작용에 있는 것이다.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교육전문가에게 모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다. 서로의 부족을 메우기 위한 노력이 팀 사역인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교육의 전문가는 신학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인 신학적 소양을 갖춘 자로 기독교교육학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져서 이를 교회교육의 현장에서 구현할 만한 능력을 갖춘 자이다. 이 기준에서 이러한 전문가의 양성을 수임 맡은 기관이나, 혹은 교육사를 관할하는 부서에서는 시험을 통해서든 계속 교육을 통해서든 이런 소양을 갖춘 자를 길러내고 선발하면 된다고 본다.

현재 대부분의 교회는 소위 ‘교육전도사’들이 교육의 책임을 맡고 있는데 이 명칭은 사실상 혼용에 보장된 합법적인 전문직도 아니고 지교회가 편의상 관습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을 뿐이다. 현재의 교육전도사의 활동을 관찰해 보면 대개의 경우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못하였으며 현장 경험도 많지 않은 비전문가들로서 ‘신학생’이란 신분만을 가지고 목회실습의 차원에서 파트타임으로 교회학교 특정부서의 교육사역에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주 교육담당자의 자질문제가 거론되고 있으며, 또한 교육전도사는 하위 체계에 갇혀 있어 거시적인 교회교육에 공헌할 가능성성이 별로 없는 것이다. 오늘의 한국 교회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교회의 내적 성숙을 위한 교육 공동체로서의 인식 그리고 교육전략수립과 함께 이를 이끌어 갈 교육전문가가 요청되고 있다. 미래의 교회는 목사의 소명을 받지 않은 자가 교회교육의 전문인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길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이 일은 교회의 교육 이외의 여러 분야에서 전문인들을 고용해 나가는 길을 터 놓을 것이며 팀 사역의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첫 단계가 될 것이다.

(5) 새로운 전략의 구상

2000년대 교회교육의 우선적인 과제는 교육의 전문화에 있다. 교회교육은 다양한 전략과 방법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기본적, 선택적, 지속적, 단속적인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즉 기본적-지속적, 기본적-단속적, 선택적-지속적, 선택적-단속적인 프로그램 등이다. 이러한 틀을 각각 어린이목회, 청소년목회, 성인목회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전문가가 교회의 행정건물을 채워 나갈 것이며 교회는 교인들의 다양한 기대와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형태를 취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필자는 가장 요긴한 전략의 하나로, 교육목회적 노력이 주일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평일의 교회는 사람이 없는 교회, 불꺼진 교회였다. 그러나 미래의 교회는 주일의 교회만이 아니라 평일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 매일 밤마다 불이 켜져 있는 교회, 주간의 모든 시간에도 교회행정이 가동되며 교회 건물이 사용되는 교회이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교회의 공간과 시설들은 무엇보다도 전 교인의 교육프로그램과 훈련을 위해서 활용되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통적 형식에서 벗어나서 주일에만 국한되어 왔던 교육적 노력을 평일까지 확장하므로 기독교교육적 기회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필자가 여러 곳에서 제안한 바 있는 주간(평일)학교의 구상은 교회의 주간의 시간을 교육을 위해 완전 가동하자는 것이다. 가능하면 주간학교는 아가방이나 탁아소를 위한 설비를 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도록 한다. 이 일은 부모전도의 기회가 되기도 하며 어린이를 비롯하여 다양한 회중의 계층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오전 시간은 유치원 과정을 실시하도록 하며 오후에는 방과 후에 돌아오는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 저녁 시간은 중·고등학생을 위한 시간으로 그리고 청년과 중년 및 노년부의 활동도 낮 시간이

나 저녁 시간을 적절히 활용하도록 한다.

특히 성인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이다. 여기서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성인교육의 구조적인 문제인데, 우선 연령별 조직으로서의 성인부를 교회학교의 조직 속에서 활성화시키고 기타 비정규적인 교육 프로그램들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계획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러한 비정규적 프로그램의 계획에서 중요한 것은 연령에 의한 조직보다는 직업, 관심, 요구, 성별, 신앙수준 등에 따라 소그룹화하여 그 그룹의 특성에 알맞는 프로그램을 계발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학습에 흥미를 주므로 동기유발을 돋고 참여와 활동을 장려하도록 한다. 특히 설비면에서 관심을 갖고 안락하고 평안한 분위기를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유익하다. 앞으로의 교회는 더욱더 다양한 그룹들을 기초로 존재해야 할 것이고, 이를 통해서 개인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단계적인 성경공부의 개발 및 각종 영성 훈련이나 조직적인 제자화훈련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성인교육을 위한 평신도학교의 개설, 교인들의 요구에 기초한 다양한 강좌의 개설, 목사나 각 분야의 전문가를 중심한 대화의 모임, 회중의 요구와 관심에 입각한 각종 상설, 비상설 그룹의 형성, 가족단위 프로그램의 개발(부부교육, 자녀교육, 신부교육, 신혼부부교육, 가정예배를 중심한 영성 훈련, 가족찬양, 가족캠프, 독신자 및 홀로된 사람을 위한 모임), 인간관계 훈련, 기초공동체 훈련, 주부대학, 경로대학, 각종 취미학교 등의 특별 프로그램 등도 가능할 것이다. 구역예배의 형식도 새롭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 낮에 주부들이 중심이 되어 모이는 구역예배가 아니라, 몇 가정의 구성원들이 연령을 초월하여 함께 모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교회는 이러한 모임에 합당한 간세대적 교육 프로그램을 계발하여야 할 것이다.

4. 맺는 말

2000년대의 목회현장을 생각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는 교육이라고 보여진다. 목회와 교육은 그 본질에서 만나게 된다. 그러므로 2000년대를 지향하는 목회는 교육목회의 형태를 추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교육목회는 무엇보다도 목회의 본질 속에 포함된 교육적인 요소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수용, 개발, 적용, 확대해 나가는 일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목회자들은 무엇보다도 교육의 중요성과 교회의 교육적 본질을 인식하고 신앙공동체적 교육을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평생교육체제로 전 회중의, 전 회중에 의한, 전 회중을 위한 교육목회가 이루어져야 한다. 목사는 무엇보다도 팀 사역의 전략을 구사할 줄 알아야 한다. 목사가 모든 것을 수행해야 한다는 생각은 수정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전문가를 양성하고 수용해 나가는 노력이 병행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참고도서목록

- 강 용 원, 교회교육의 새로운 전망, 부산:총회교육위원회, 1993.
- 미국 감리교 교육부 편저, 오인탁 역, 교육목회 지침서, 서울:장로회 신학대학 출판부, 1980.
- Foster, C. R., *Teaching in the Community of Faith*, Nashvill : Abingdon, 1982.
- Nelson, C. E., *How Faith Matures*, Louisville : John Knox Press, 1989.
- Sisemore, J. T., ed., *The Ministry of Religious Education*, Nashville : Broadman Press, 1978.
- Westerhoff, J. H. III, *Will Our Children have Faith?*, New York, Seabury Press, 1976.

II부

목회자가 보는 2,000년대 교회와 목회현장

- 2,000년을 맞는 나의 목회 / 서정오
- 나의 2,000년대 교회 목회를 말한다 / 이용호
- 2,000년대 교회와 목회자의 리더쉽 / 홍정길
- 21세기를 향한 바람직한 목회자상 / 하해룡
- 나의 2,000년대 목회를 말한다 / 서용주
- 21세기의 한국교회와 학생신앙운동의 전망 / 김광석